과학벨트 분산배치설 논란 가열

충청권 "영남 위해 공약 뒤집어"
이주호 장관 "백지상태 재검토"
호남권 "광주와야 시너지 효과"

동남권 신공항의 백지화 논란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조성을 놓고 지자체 및 정치권의 대치가 격렬해지고 있다.

특히 과학벨트의 '분산 배치' 여부와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 가속기 등 핵심 시설의 향배 등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도 영향이 불가피 할 전망이어서 정치권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위원장인 과학벨트위원회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첫 회의를 갖고 과학벨트의 입지와 재원조달 방법 등 기본계획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교과부가 과학벨트안을 마련,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지금 이 시점에서 교과부 과학벨트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과학벨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해 관계에서 벗어나 과학적 합리성에 기초해 판단할 것"이라고 부인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입지선정위가 오늘 첫 회의를 하는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결정된 사항이 아무 것도 없다고 했다"며 "교과부는 (입지 선정에 대해) 아무 것도 결정한 것이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충청권은 과학벨트 분산배치론이 동남권 신공항 건설 백지화 결정 등으로 악화된 영남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전시장 출신인 한나라당 박성효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과학벨트 분산배치론과 관련, '대통령의 인품' 문제까지 거론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특히,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학벨트의 분산배치론과 관련, "공약을 해 놓고 그것을 뒤엎기 위해 대가를 주는, 다른 공약을 한 지역에 과학벨트를 쪼개주는 식의 불신의 정치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필요하다면 대표직도 내놓을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어 "우리 당과 생각을 함께하고 미래를 함께 논의하며 행동할 수 있는 정당과 정파, 세력이 있다면 합당도 불사하겠다"며 "정체성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청권의 모든 정파와 정당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의 과학벨트 유치 총력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 당론을 거듭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학벨트 호남권유치위원회도 이날 비공개 회의를 갖고 과학벨트 분산배치와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 가속기 등 핵심 시설 유치 방안 등을 논의했다.

호남권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은 "영남권에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 가속기가 배치되지는 않을 것이며 결국 호남권과 충청권이 경쟁을 벌일 것"이라며 "호남권에 과학벨트가 유치된다면 국가균형발전, 지역갈등 해소, 과학기술 발전과 비즈니스의 효율적인 접목 등이 이뤄지면서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1차 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여수를 방문한 로레스 탈레스 BIE(국제박람회기구)사무총장과 이준희 정부대표 및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참가국 대표들이 여수엑스포 홍보관을 관람하고 있다. /여수=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여수박람회 준비 잘 되고 있어 만족"

로세르탈레스 BIE 사무총장

로세르탈레스 국제박람회기구(BIE) 사무총장은 7일 "내년 5월 개막하는 여수엑스포 준비가 잘 되고 있어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여수엑스포 제2차 참가국 회의 행사를 위해 여수박람회 준비 현장을 방문하고 조직위로부터 준비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직위로부터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이나 박람회장 시설, 전시물 준비 등 모든 분야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며 "시일이 촉박하지만 잘 준비되고 있어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자원봉사와 성숙된 시민의식이 박람회 성공의 척도"라며 "여수시민들이 박람회 개최의 진정한 주역인 만큼 성공적인 박람회가 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여수 방문에는 전 세계 132개국 10개 국제기구 180여명의 참가국 대표와 이준희 정부대표 등 조직위 관계자 20여명이 함께했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광주시 여수박람회 지원협의회 구성

광주시가 민·관이 참여하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협의회'를 구성한다.

지원협의회 구성은 지난 3월10일 열린 광주·전남 광역행정협의회의 '2012 여수세계박람회 성공개최 협력체계 구축' 합의에 따른 것으로, 음식·숙박·관광·투자유치 관련 협회와 기관, 공무원 등 22명이 참여한다.

광주시는 전남도에서 요청한 학생 등의 단체관람객 유치, 시청 홈페이지·전광판을 통한 홍보, 숙박 대책 이외에도 교통·수송, 문화·관광, 음식 분야 등 대형행사 개최를 위해 지원이 필수적인 분야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여수엑스포를 통해 광주의 문화, 관광자원을 세계에 소개하는 것은 물론 지역 기업의 홍보, 투자유치 등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 3월10일 시·도지사의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위한 합의정신이 성과로 이어지도록 여수박람회 등 국제행사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문화콘텐츠가 지역발전 핵심동력…역량 모으자"

광주문화도시협·시의회 CT연구원 유치 전략 토론회

광주 문화콘텐츠기술(CT)연구원 유치 정책이 중앙의 정치적 배려 또는 지원에서 벗어나 앞으로 지역 내부로부터 추진력이 발휘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광주시의회 예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CT연구원 광주 유치를 위한 새로운 전략과 실천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제9차 시민소통마당(포럼)에서 이칠우 전남대 CT연구소장(CT연구원 유치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CT연구원 설립이 정치적 태생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바람에 중앙의 정치적 배려 또는 지원만을 기대해왔다"라며 "이제는 우리 지역 내부로부터 CT연구원 설립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와 함께 추진력이 발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지금까지 CT 연구원 설립, 즉 태생의 근거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만을 노리는 데 있었다"라며 "이제는 문화산업 고유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아시아문화전당과 차별성을 통해 CT연구원이 지역 발전의 핵심 원동력임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향후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CT연구원 유치 추진을 위해서는 ▲유치활동 중심을 광주시에서 민·관·연·학이 결집한 거버넌스 구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한계를 넘어 CT연구원 정체성 확인과 문화산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재인식하는 활동 등을 전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이밖에 ▲지역 내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가 지원 그룹 형성 ▲CT연구원 유치를 위한 광주시의 선행사업 시급히 추진 ▲지역 대학의 강력한 협조체계 구축 등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광주문화도시협의회가 CT연구원유치위원회와 광주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이칠우 교수의 발표 외에 전주연 의원(광주시의회 문화수도특별위원회 간사)이 사회를 맡고 정여배 광주시 문화예술산업과장, 김안호 아문단 문화도시개발과장, 홍인화 광주시의회 의원, 우운택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김영집 광주문화도시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